새로운 행성을 향한 예술적 상상

아시아문화전당, 12월 5일까지 청년작가 레지던시 결과전시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이주'전 27~28일 '온라인리서치 쇼' 진행

다른 이의 시각을 통해 다중적 현실을 드러내는 이윤재 작가의 'Only True Voage'. 〈ACC 제공〉

지구의 파괴된 환경에서 인류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과연 인류는 지구를 떠나야 할까? 예술적 상상력으로 지구의 새로운 영토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하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이 청년작가 레지던시 결과전시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이주' 전을 진행중이다. 오는 12월 5일까지 ACC 복합2관.

조주현 큐레이터(연세대 겸임교수)가 총괄 기획했으며 예술가, 전시 기획자, 과학기술연구자 등이 인류학과 자연과학에 예술적 상상을 모색했다.

이번 전시에서 레지던시 공모에 선발된 8팀 9명의 입주작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침묵을 깨고 8가지의 전술을 발휘한다.

먼저 신재은 작가는 인간/비인간의 불편한 관계를 중심으로 예술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임의그룹은 환경과 사람의 관계 설정에서 도태된 사람들 등에 관한 얘기를 퍼포먼스 필름을 통해 재현한다.

장은하 작가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식용목적으로 아시아로 유입된 외래종을 연구한 결과를 가상의 인물을 통해 발표하며, 황선정 작가는 땅 속 균사체의 지능과 지혜를 모티브로 영상설치와 퍼포먼스를 펼친다.

박지수 작가는 소음공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작품을 준비했으며, 나혜수 작가는 재난 이후의 도시를 상상한 '비저너리 건축' 방법론을 시각화했다.

동양의 '반고' 신화의 동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 관계를 재창조 하는 강민희 작가와 다른 이의 눈을 통해 다중적 현실을 드러내는 이윤재 작가의 작품도 흥미롭다.

오는 27일과 28일에는 '온라인 리서치 쇼'도 진행한다. 작가의 발표, 퍼포먼스 및 강연은 ACC 유튜브 채널과 전시 누리집으로 관람할 수 있다. 카이스트 최명애, 전치형, 조현정 교수가 각각 준비한 '재야생화', '공기 위기', '생존 건축' 강연은 인류세를 바라보는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과 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2-601-402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음악·문학의 컬래버레이션 북앨범 출간

김용택 시인 등 예술가 글·그림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음악과 문학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 북앨범 '골디락스:간격' (도서출판 걷는사람)을 출간했다. 북앨범에는 우리 시대의 멘토로 일컬어지는 김용택, 도종환, 정호승 시인 등 아홉 명의 예술가가 창작한 글·그림을 비롯해 전남도립국악단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연주한 열다섯 곡의 음악이 해설과 함께 담겼다.

영국의 전래동화 '곰 세 마리'에 등장하는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 '골디락스(Goldilocks)'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최적의 간격'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이 '골디락스'라는 의미에 걸맞게 '최적의 거리, 아름다운 간격'이라는 주제로 시와 산문, 그림, 음악을 선별해 북앨범을 엮었다.

책에는 김용택 시인의 시 '이 글은 시가 아닙니다 나의 새벽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산문 '꽃과 나의 빈빈한 거리', 박재동 화백의 글·그림 '적정거리', 안도현 시인의 산문 '때를 맞추는 일', 이건용 작곡가의 산문 '도전과 스밈과 골디락스', 정호승 시인 의 시 '그네' 등이 담겼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전래놀이 노래 '점아 점아 콩점아', 실내악 '룡강기나리', 피리 독주 '나무가 있는 언덕', 거문고를 위한 세 개의 악장 '용서하고픈 기억,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 피날레 '세상이 너를 알지 못해도', 관현악 합창 '오래된 미래', 해금 독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등을 수록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서구문화원, 26일 수강생 작품발표회

광주 서구문화원(문화원)은 26일 서구문화원의 날을 맞아 서구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지난 1년간 진행한 문화프로그램 수강생들 작품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는 문화원이 빛고을문화교실에서 운영했던 시낭송반, 우쿨렐레반, 봉고반, 수어반, 연극반, 영어반, 중국어반 수강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 공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표회를 갖지 못했다.

발표회는 오후 1시부터 사진반, 수채화반, 캘리그라피반, 문예창작반 수강생들의 작품 약 40여점이 공연장 로비에서 전시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2시부터는 시낭송반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 수강 회원들이 갈고 닦은 솜씨를 펼친다.

한편 문화원은 영상을 녹화해 유튜브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계정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발표회는 코로나19감염증 예방으로 인해 관람 인원을 발표 회원과 강사로 제한했다.

문의 062-681-417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경관의 피'에 출연하는 배우 조진웅(왼쪽)과 최우식.

조진웅 "약한줄 알았던 최우식, 카리스마 뿜어" 최우식 "액션 등 강한 캐릭터 보여주고 싶었다"

내년 1월 개봉 경찰 영화 '경관의 피'서 첫 호흡

배우 조진웅과 최우식이 경찰을 감시하는 경찰을 다룬 언더커버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 내년 1월 개봉하는 이규만 감독의 범죄 드라마 '경관의 피'다.

최우식은 25일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제 또래 모든 남자배우가 함께 촬영하고 싶은 배우 버킷리스트에 조진웅 선배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현장에서 긴장할 때마다 옆을 든든하게 지켜줘 감사했다"고 말했다.

조진웅도 "여리여리할 줄 알았던 최우식이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내재해 있던 카리스마 같은 걸 뿜었다"고 칭찬하면서 "좀 더 같이 호흡하고 싶어서 일부러 NG를 낸 적도 있었다"며 웃었다.

조진웅과 최우식은 출처가 불분명한 후원금을 받고 상위 1%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 박강윤과 그를 감시하는 경찰 최민재를 각각 연기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위법 행위도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결과보다는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부딪치며 일어나는 이야기가 영화에 담겼다.

이규만 감독은 "경찰들이 현장에서 사건을 만났을 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신념은 제각각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다른 신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들이 극의 긴장감을 좌우하는 만큼 배우들의 연기가 매우 중요했다. 이 감독은 "배우들의 유연한 캐릭터 해석을 믿고 갔다"면서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텐션이 유지돼야 하는데, 배우 중 아무도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진웅은 영화 속 박강윤이 믿는 신념을 최대한 신뢰하는 게 목표였다며 "다른 것은 거들떠볼 필요 없이 올곧게 가면 될 거 같다는 생각으로 연기했다"고 했다.

최우식은 "이번에는 강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다양한 액션신도 있고 육체적으로 행동을 먼저 하는 인물을 연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는 유약하고 무능력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있는 20대를 연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박희순이 경찰의 썩은 뿌리를 파헤치는 감찰계장 황인호 역을, 권율이 사회 상위 1%만 상대하는 범죄자 나영빈 역을 맡았다. 박명훈은 경찰과의 거래로 살아남은 범죄자 차동철을 연기했다.

악역을 소화하기 위해 12㎏을 증량했다는 권율은 "두 경찰의 신념을 미묘하게 건드리는 캐릭터"라며 "둘을 딜레마로 끌고 가는 강력한 인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우 이지아, 다큐멘터리 프리젠터 나선다

EBS 다큐 '더 홈' 출연

배우 이지아가 데뷔 후 처음으로 다큐멘터리 프리젠터로 나선다.

EBS 1TV는 배우 이지아가 EBS 10부작 다큐멘터리 '더 홈'에 출연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장현실(XR) 우주 대기획 '더 홈'은 우주의 탄생을 다룬 빅뱅부터 태양, 초신성, 블랙홀, 다중우주, 암흑물질, 우주의 종말까지 우주의 시작과 끝을 망라하는 10개의 주제를 XR, 증강현실(AR) 등 기술을 통해 흥미롭게 제시한다.

또 그 속에서 우주는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등 인류가 오랜 기간 품어온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간다.

이지아는 '더 홈'의 다큐멘터리 내용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XR 스튜디오에 구현된 우주 속에서 직접 블랙홀로 들어가고, AR로 등장한 별이나 입자와 교감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간접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 홈'은 오는 2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내달 14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 55분 EBS 1TV에서 방송된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밑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홍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꿀꽈배기 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꿀꽈배기2개 1000원, 옛날핫도그1개 1000원
치즈핫도그1개 1500원, 찹쌀도너스2개 1000원
팥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 쟁 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급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한 국 기 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엣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송가네 반찬
광주 남구 백운로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동태랑대구랑전문점
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